

10월 소비자물가는 1.3% 상승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.8% 상승

<'24.10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에너지제외	농산물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'24.9월 → 10월	1.6 → 1.3	2.0 → 1.8	1.8 → 1.7	1.5 → 1.2	3.4 → 1.6

'24.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(1.6%)보다 $\Delta 0.3\%p$ 하락한 전년동월비 1.3%를 기록하면서 '21.1월(0.9%) 이후 3년 9개월(45개월)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.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(전월비 $\Delta 2.3\%$, 전년동월비 $\Delta 10.9\%$)된 가운데,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1%대로 둔화(전월비 $\Delta 1.1\%$, 전년동월비 1.2%)된 데 기인한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비 1.8%(9월 2.0%)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비 1.2%(9월 1.5%) 상승하면서 45개월('21.1월 0.8%)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.

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,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%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. 다만,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, 정부는 채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 특히,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(2.4만톤)·무(9.1천톤), 고추·마늘·양파 등 양념채소(2천톤)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 배추·무(최대 40%), 대파·마늘·천일염·젓갈류(최대 50%) 등 김장재료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. 아울러,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을 지속 점검(모니터링)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<별첨> '24.10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경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연정은 (jey0903@korea.kr)
			주무관	박새롬 (psr922@korea.kr)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1.3% 상승 (9월 1.6%)

(%)	'23.10	11	12	'24.1	2	3	4	5	6	7	8	9	10
전년동월비	3.8	3.3	3.2	2.8	3.1	3.1	2.9	2.7	2.4	2.6	2.0	1.6	1.3
전월비	0.4	△0.5	0.0	0.4	0.5	0.1	0.1	0.1	△0.2	0.3	0.4	0.1	0.0

-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, 과일 출하량 증가에 따른 과일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상승폭 축소(2.3→1.2%)

* 전월비 변화율(%): <농산물> △2.5 (채소) 1.2 (과일) △8.3 <축산물> 0.6 <수산물> 0.8

- 석유류 물가는 중동불안에도 국제유가 상승폭 제한, 지난해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하락폭 확대(△7.6→△10.9%)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10)89.8 / ('24.4)89.2 (5)84.0 (6)82.6 (7)83.8 (8)77.6 (9)73.5 (10)74.9

** 휘발유 가격(원/l): ('23.10)1,776 / ('24.4)1,688 (5)1,697 (6)1,657 (7)1,707 (8)1,691 (9)1,622 (10)1,591
경 유 가격(원/l): ('23.10)1,690 / ('24.4)1,558 (5)1,540 (6)1,488 (7)1,542 (8)1,529 (9)1,458 (10)1,4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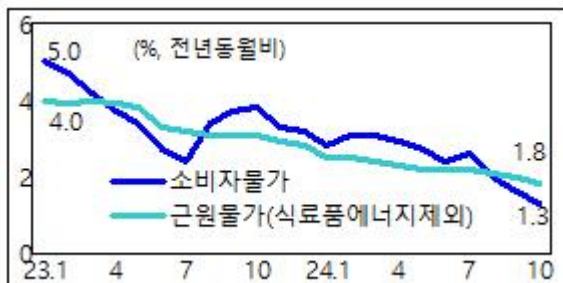
-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서비스 상승폭 확대, 외식제외 서비스 상승폭 축소로 전년동월비 보합(2.9→2.9%)

* 개인서비스(%, 전년비): ('24.1)3.5 (2)3.4 (3)3.1 (4)2.8 (5)2.8 (6)2.7 (7)2.9 (8)3.0 (9)2.9 (10)2.9
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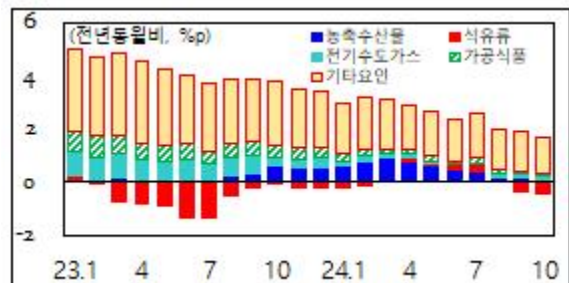
품목별 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 식품	전기·가스·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9월											
전년동월비	1.6	2.3	0.3	△7.6	1.6	3.0	0.5	1.3	2.9	2.6	3.2
(기여도, %p)		0.2	0.1	△0.3	0.1	0.1	0.0	0.2	1.0	0.4	0.6
10월											
전년동월비	1.3	1.2	△0.3	△10.9	1.7	3.0	0.5	0.9	2.9	2.9	2.9
(기여도, %p)		0.1	△0.1	△0.5	0.1	0.1	0.1	0.1	1.0	0.4	0.6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



* 자료: 통계청

물가 기여도



* 자료: 통계청

② [근원물가] 안정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비 1.8% 상승(9월 2.0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10	11	12	'24.1	2	3	4	5	6	7	8	9	10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3.1	2.9	2.8	2.5	2.5	2.4	2.3	2.2	2.2	2.2	2.1	2.0	1.8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3.6	3.2	3.1	2.6	2.6	2.4	2.3	2.0	2.0	2.1	1.9	1.8	1.7

③ [생활물가]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1.2% 상승(9월 1.5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10	11	12	'24.1	2	3	4	5	6	7	8	9	10
생활물가지수	4.6	4.0	3.7	3.4	3.7	3.8	3.6	3.1	2.8	3.0	2.1	1.5	1.2

④ [신선식품] 신선과실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1.6% 상승(9월 3.4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실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 % '24.9→'24.10월: (신선과실)△2.9→△10.7 (신선채소)11.6→15.7 (신선어개)0.8→0.2
(전 월 비 % '24.9→'24.10월: (신선과실)△7.0→△8.4 (신선채소)18.7→1.2 (신선어개)0.2→0.8

(전년동월비, %)	10	11	12	'24.1	2	3	4	5	6	7	8	9	10
신선식품지수	13.3	13.7	14.5	14.4	20.0	19.5	19.1	17.3	11.7	7.7	3.2	3.4	1.6

2. 평가 및 대응

□ [평가] 10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,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45개월('21.1월 0.9%) 만에 최저치

○ 국제유가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 둔화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1.8%로 안정흐름 지속

< (참고) 주요국 소비자물가/근원물가 >

	한국		미국	영국	일본	OECD	EU
	'24.10월	'24.9월	'24.9월	'24.9월	'24.9월	'24.9월	'24.9월
소비자물가(% 전년동월비)	1.3	1.6	2.4	2.6	2.5	4.4	2.1
근원물가(% 전년동월비)	1.8	2.0	3.5	4.0	1.8	5.1	2.9

□ [대응] 기상이변·유가불안 등 외부충격이 없다면 2% 이내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, 체감물가 안정 등 확고한 안정기조 정착 노력 지속

○ 김장철 배추(2.4만톤)·무(0.9만톤) 공급확대(11.중순~12.상순), 배추·무·젓갈류 등 최대 50% 할인(11.7~12.4) 등 김장재료 가격·수급안정

○ 석유류는 중동정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유류세 일부환원 계기 편승인상이 없도록 점검